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언제부턴가 우리는 누군가와 마주앉은 카페 안이나 복잡한 출근길에서, 또는 힘겹게 하루 일을 마치고 깔끔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 한잔을 마주하는 것이 현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 가정에서도 설거지의 수고로움을 덜고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일회용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글\_박민경 차장(소비자정보국 소비자교육사업단)

### 일회용품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

출근길에서 전날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 컵 무더기를 발견하거나 TV를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삼켜 고통 받고 있는 동물 사진을 보게 될 때면 이 편리한 일회용품이 지구를 얼마나 쉽게 훼손시킬 수 있는지 새삼 깨닫는다.

놀랍게도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60억 개이며, 한 개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데 최소 5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국민 1인당 연간 410여 개로 세계 1위이며, 전체 1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은 211억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일회용품은 한 번만 쓰고 버리게 되어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특히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

고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불편하다거나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환경부는 8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친환경 소비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2018년을 '친환경 소비확산'을 소비자의식 개선 과제로 정하고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등 각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 소비 무화 확산 위한 콘텐츠 공모전

내부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한 충북혁신도시에서 지역 환경캠페인을 시작으로 기관장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매장 곳곳을 방문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무실에서 아예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사내 카페 이용 시에도 개인 텀블러 사용에 적극 참여한 결과, 일회용품이 빠르게 사라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과 각

\* 환경부 2015년도 자료 기준

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참여자문단'을 통해 친환경 소비 문화 실천 생활수칙을 선정하여 동영상, 카드뉴스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이 공모전에서는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UCC와 카드뉴스 부문에 걸쳐 참신하고 다양한 19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어 앞으로 홍보자료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UCC 부문 대상 최병민 씨의 '소비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웃습니다'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 친환경 소비문화 알리려 다방면으로 노력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와 공동으로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서울·부

산·광주·대구·인천 등 전국 5대 지역에서 현장캠페인을 펼쳐 소비자에게는 의식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자에게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각 학교와 지자체를 통해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을 홍보하며, 환경문제와 친환경 소비문화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는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머그잔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만큼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졌으며, 테이크아웃 할 때에도 자신의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알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知易行難, 서경)는 말이 있듯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실천하는 지식이 진짜 아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우리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아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후세에 물려줄 살기 좋은 녹색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